

고소한 방어회·시원한 곰치국... 겨울포구 함께 갈래요?



▲제주 모슬포항 방어회.

퐁퐁 여행객 마음 풀어줄 겨울별미

제주 모슬포항 방어회 육질 단단해 쫄깃 대진항 도치·장치·곰치는 동해안 명물 포항 모리국수·거제 외포 대구탕도 일품

얼굴에 부딪치는 차가운 해풍과 코끝에 스며드는 비릿하면서 짭짤한 내음. 겨울 포구는 다른 계절에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정취와 매력이 있다. 그래서일까, 겨울여행 명소에는 유난히 동서, 남해안의 포구들이 많다. 이들 겨울 바다여행의 명소들은 마음을 사로잡는 풍광 못지않게 그 고장의 향토색을 듬뿍 담은 별미들도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쓰다니느라 퐁퐁 언 여행객의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풀어주는 포구의 별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철엔 참치보다 맛있다, 제주 모슬포 방어

'제철에 먹으면 참치보다 더 맛있다'는 방어.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겨울이다. 볼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듬뿍 11월부터 2월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방어는 클수록 맛이 있는 생선이다. 5kg 이상이면 대방어로 부르는데, 그 맛이 각별하다. 겨울 방어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제주도 남단의 대표적인 항구 모슬포항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방어는 한참 성장하는 봄여름에는 몸에 기생충이 있어 성어가 되는 겨울이 되어야 회맛을 즐길 수 있다. 기름이 잘 올라 맛이 고소하고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쫄깃하다. 여러 부위 중에 아가미살과 뱃살이 특히 고소하다. 남은 부위로 탕을 끓여주는 것은 다른 회와 비슷한데, 방어는 여기에 더해 머리를 구워 먹는다. 노릇노릇한 머리구이가 별미여서 방어 맛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회보다 더 찾는다.

●겨울 해장의 끝판왕, 강릉, 양양의 섭국

'섭'은 자연산 홍합을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다. 자연산 홍합에 밀가루로 옷을 입히고 미나리, 부추, 버섯 등의 야채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탕이 섭국이다. 섭국에 들어가는 자연산 홍합은 포장마차나 중국집에서 접하는 홍합(지중해 담치)과 달리 참담치로 불리는 우리 고유종이다. 크기가 지중해 담치보다 훨씬 크고 양식이 불가능해 직접 채취해야 한다. 육질이 쫄깃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수은이 차고 껍질이 없는 동해안의 것을 최고로 친다. 지역에 따라 조리법이 조금씩 틀리지만, 국물이 걸쭉하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해 해장용으로 최고다. 맛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을 돕는 타우린과 노화 유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A와 C도 풍부하다.

●동해안 겨울 별미 삼삼사, 대진항의 도치·장치·곰치

강원도 바닷가를 요람때 방문하면 '뭇난이 삼삼사'라고 불리는 생선들을 볼 수 있다. 도치, 장치, 곰치다. 어획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산지에서 소비돼 이 녀석들을 맛보려면 동해안을 찾아가야 한다. 동해 최북단 대진항이 도치, 장치, 곰치 출하량이 가장 많다. 대표 음식은 곰치국과 도치알탕. 곰치국은 고춧가루를 넣고 얼큰하게 끓이는 속초나 삼척과는 달리, 대진항이 있는 고성 지역에서는 맑은 탕으로 먹는다. 도치알탕은 암컷의 알과 내장, 대진 도치 살과 신 김치를 넣어 끓인다. 역시 국물이 개운하고 비린내가 없어 먹기 편하다. 간간히 씹히는 알의 식감이 좋다. 도치는 숙회와 무침, 알 찜으로도 먹는다. 술안주로 인기인 도치숙회는 포들포들한 식감이 일품이다. 고성에서 제사 음식으로 올리는 귀한 도치 알찜은 소금물에 여러 번 씻은 알을 사각으로 모양을 잡고 물기를 뺀 뒤 찜해서 먹는다. 장치는 사나흘 말려 꾸덕꾸덕해지면 콩나물을 넣고 매콤하게 찜하니 무를 넣고 조리한다.

●두툽한 면발과 묵직한 해물육수의 조화, 포항 모리국수

겨울철에 포항지역 구룡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모리국수다. 모리국수는 국물을 멸치나 사골이 아닌 미역추나 장치, 또는 바다메기로도 불리는 장갱이, 아귀 등의 생선으로 낸다. 고춧가



▲강원 고성 곰치국. 사진촬영 이정화.

루와 함께 양념을 풀고 생선을 푹 고은 뒤, 콩나물, 파, 홍합, 새우를 넣고 두툽한 면발의 국수를 넣어 끓인다. 충청지역의 생선 국수처럼 국물이 묵직하지만 면이 더 두껍다. 가정요리에서 출발하다 보니 가게마다 국물 내는 방식부터 면을 뽑는 방식, 담은 모양새까지 다양하다. 모리국수는 국물부터 먹다보면 면이 붙어, 먼저 국수부터 건져 먹는 게 일반적이다. 그 뒤에 깊은 맛의 국물과 생선살을 건져 먹는 재미가 각별하다.

●담백한 식감과 개운한 맛, 거제 외포 대구탕

대구는 12월부터 2월까지 산란기로 가장 맛이 있다. 거제 동부 해안의 외포리는 대구 산란기에도 조업과 위판이 허용되는 유일한 곳으로 전국 대구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살아있는 대구로 요리하는 음식점이 많다. 맑게 끓인 대구탕은 다른 생선탕보다 진하고 기름지지않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구수하면서 개운한 맛을 자랑한다. 거제에서는 구수한 맛을 높이기 위해 대구 대가리로 국물을 낸다. 대구점은 생대구 살이 부서지지 않게 감지에 싸서 찌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 특유의 담백한 맛과 김치의 신맛이 잘 어울린다. 산지이기엔 맛볼 수 있는 것으로는 대구회가 있다. 생대구는 살이 수분이 많고 맛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생대구보다 살짝 말린 대구회를 선호한다. 아가미와 내장을 정리하고 바닷가에서 3~5일 말리면 수분이 증발해 식감이 차지고 감칠맛이 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대진항 도치숙회. 사진촬영 이정화.



▲포항 구룡포 모리국수.



▲경남 거제 대구탕. 사진촬영 오주환.



▲강원도 섭국.



▲강원 고성 도치말뺌. 사진촬영 이정화.



▲강원 고성 장치찜. 사진촬영 이정화.

주말공감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여교사' 4일 개봉 | 감독 김태용 | 주연 김하늘 유인영 이원근 | 96분 | 청소년관람불가

두고두고 이야기될 한국 영화다. 계약직 여교사 효주(김하늘)는 자기 차레인 정교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재단 이사장의 딸 혜영(유인영)이 거슬린다. 피해의식에서 시작한 질투는 욕망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게 된다. 효주는 잠시 담임을 맡은 반에서 무용특기생 재하(이원근)를 눈여겨보지만 이내 혜영과 재하의 관계를 눈치 챈다. 그 비밀을 빌미로 효주는 재하에게 접근한다. 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은 대학생이던 2010년 '얼어붙은 땅'으로 칸 국제영화제 학생 단편부문 경쟁에 진출해 주목받았다.

●god '2017 지오디 투 먼' 6~8일 |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 150분 | 만7세

6개 도시 전국투어의 포문을 여는 첫 콘서트. god는 이번 공연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젠틀맨'으로의 변신을 보여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음악적으로 한층 깊이 있고 성숙해진 울림을 전하겠다는 포부다. 투어기간 중 인천 공연인 1월13일은 god의 데뷔 18주년 기념일이다. 이에 god는 서울 인천 대구 일산 광주 부산 공연을 찾는 모든 관객들을 위해 2015년 공연 하이라이트 DVD를 선물한다. 문의 1599-2005.

●메탈리카 '메탈리카 월드워드 투어 2017' 11일 오후 8시 | 서울 고척스카이돔 | 150분 | 만7세

'헤비메탈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메탈리카의 내한공연. 최근 발표한 10집 '하드워드... 투 쉘프-디스트릭트' 발매를 기념한 월드투어 일환. 아시아 지역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 메탈리카는 1998년 첫 내한공연 당시 2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2006년과 2013년 내한공연을 통해 누적 10만 관객을 기록했다. 4번째 내한인 이번엔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하는 최초의 해외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문의 02-3141-4956.

예술가와 할리우드 스타 매료시킨 '아르데코의 여왕'

(파리 중심으로 전개했던 1920~30년대 장식미술)

양행도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렘피카' 전 한가람미술관 3월5일까지

아르데코 양식의 부드러운 입체주의 작가 매혹적 관능적 표현으로 미술·패션계 영향 사넬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뮤즈

'아르데코의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 20세기 세계 미술계를 매혹과 관능이라는 황금빛으로 칠해버린 여성, 타마라 렘피카(1898~1980·TAMARA DE LEMPICKA)이다.

폴란드 바르샤바 태생(러시아 모스크바라는 설도 있다)으로 미술계뿐 아니라 패션, 디자인계에도 깊은 족적을 새겼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뮤즈로 추앙받고 있을 정도다.

타마라 렘피카의 스펀터클한 삶과 매혹적인 예술세계는 사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 루이비통의 마크 제이콥스 등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돈나를 비롯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매료시킨 작가로도 유명하다.

'아르데코의 여왕-타마라 렘피카전'이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3월 5일까지 열린다.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유화 작품과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 드로잉 등 타마라 렘피카의 삶과 예술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공개됐다.

타마라 렘피카는 아르데코의 양식을 수용해 '부드러운 입체주의'라는 독특한 화풍을 남긴 작가이다. 타마라 렘피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르데코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르데코는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던 1920~1930년대의 장식미술이다. 아르데코라는 이름은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현대장식미술·산업미술국제전'에서 연유했다.

흐르는 듯한 곡선이 특징인 아르누보와는 대조적인 양식이다. 기본적인 형태의 반복, 동심



렘피카 작품 '만들러를 든 여인'(원쪽)과 '자화상'.



사진제공 | 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

원, 지그재그 등 기하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타마라 렘피카는 신여성의 대명사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회자되었던 작가이기도 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변화되어 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어법으로 화폭 위에 재현했기 때문이다.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1920년대 사교계와 예술계에서 조상 화가로 명성을 쌓았다.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성에 대한 주제를 매혹적이고 관능적으로 표현했다. 귀족부인, 사교계의 유명인사들을 세련되면서도 퇴폐적으로 묘사했다. 당대 예술계는 타마라 렘피카의 솔직함과 대담함에 주목했고, 경악했다.

살롱 도톤, 살롱 데 앙데팡당과 같은 전위적인 파리살롱에서 전시회를 열어 화제를 불러일

켰다. 첫 개인전은 192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다.

2년 뒤인 1927년 보르도국제미술전에서 '발코니에 있는 키트'라는 작품으로 1등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화단에 등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마라 렘피카의 패션과 시크릿한 공간을 분석·재현해 아르데코 양식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타마라 드 렘피카재단컬렉션에서 엄선한 유화, 수채화, 드로잉, 사진,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 측은 "이번 전시는 혁명과 전쟁이 야기한 시대의 혼란 속에서 여성의 지위로 성공을 얻어낸 여성화가 렘피카의 진면목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책 읽는 주말

●해찰: 언저리의 미학·윌리엄 켄트리지: 주변적 고찰 (윌리엄 켄트리지·수류산방 역음 | 수류산방)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3월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전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전시의 주인공인 윌리엄 켄트리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이다. 이 책은 세계적 반열에 오른 예술가와 그의 작품이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소개하는 통상의 흐름을 넘어선다. 우리의 현실과 예술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질문을 유지하면서 켄트리지의 성과뿐 아니라 '주변적 고찰'이라는 제목에 담긴 그의 작가적 태도와 접근 방법에 주목한다.

양형모 기자

엄마 아바 이디가

●자라섬 생생 겨울축제 (1.6~2.5, 가평군 자라섬 가평천 일대)

여름철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자라섬에서 열리는 겨울축제. 얼음 송어낚시를 비롯해 빙어체험, 튜브썰매, 꼬마가차, 스노우 래프팅, 얼음썰매 등의 워터파크 플레이존, 석궁 만들기, 대나무활 만들기, 원목 하모니카 오카리나 체험, 산타 유리향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축제 초반에는 결빙상태에 따라 얼음송어낚시는 여수로 낚시터 체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지리산 남면 바래봉 눈꽃축제 (~2.12 지리산 허브밸리, 바래봉 일대)

올해로 6회를 맞은 겨울축제. 운봉 애향회와 운봉읍이 주관한다. 눈썰매, 바래봉 눈썰매등반대회, 눈조각 조형물전시, 각종 체험행사(허브)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120m 길이의 눈썰매장이 하이라이드다. 체험장에서는 고무마를 구워 먹으며 겨울 낭만을 맛볼 수 있다. 허브제품 만들기, 바래봉 눈꽃등반, 눈조각 전시 등을 진행한다.